산림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10.(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생활권 위험목' 긴급 예찰·방제 총력 대응

- 생활권 위험목 긴급 항공·지상예찰 실시, 우선순위 따라 긴급 예산 등 지원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최근 주택가, 도로변까지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 생활권 위험목으로 인한 주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중심의 '생활권 위험목 긴급 예찰 조사'를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전국적인 예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요청한 긴급 예찰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 실시를 확대하고, 위험도와 방제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면밀히 고려해 방제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예찰은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의 드론장비 활용과 산림재난대응단, 현장특임관 등 국가 차원의 가용인력 및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드론예찰단 등 민·관을 총 동원해 정밀한 예찰을 지원한다.

* 국민참여 드론예찰단 : 국내 최대 드론 카페동호회 등 민간 참여

한편, 지난 10월 고속도로·철도 주변에서도 피해목 방제를 위한 현장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속도로·철도 주변 위험목(9만4천본)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농림위성, 헬기, 드론의 3중 예찰, AI 활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소나무재선충병 및 생활권 위험목 상황을 정밀 파악하고 예찰과 방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생활권까지 확산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긴급 예찰과 예산·인력 지원으로 생활권 위험목을 최우선으로 제거해 방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년에는 격자단위의 정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가 중심 예찰을 확대해 재선충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림병해충방제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2-481-4174)
		담당자	사무관	김동규 (042-481-40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